IIRI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No. 53

IIRI Online Series

미-중 전략적 경쟁의 구조화와 한국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19. 11. 6

IIRI 일민국제관계연구원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미-중 전략적 경쟁의 구조화와 한국

정 재 호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제정세가 숨 가쁘게 요동치고 있다. '주권의 종언'과 '국경의 소멸' 등을 제시하며 국제화/세계화의 확산을 자신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자국 우선, '주권의 회귀' 그리고 보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냉전시기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았던가 할 정도로 복잡다단한 '전통적 갈등요인들'이 재등장해 국제정세를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국제관계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미-중 관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미-중 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냉전기의 미-소 관계와는 달리 자유주의 경제/통상체제로부터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두 나라이기에 협력의 비중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미-중 협력의 수준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긴 역사를 통해 중국이 자신의 '전통적 세력권'이라 인식해온 동아시아에서만큼은 미-중 관계가 '제로섬'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슈 영역에 대한 것으로, 미-중 협력은 대체로 비(非) 안보분야에서, 그리고 안보영역에서도 특히 비(非) 전통안보에서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두 요인의 교집합인 북핵 문제를 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강대국화와 더불어 2013년 이후 중국이 추진해온

'공세적 외교'는 동아시아에서 미-중 경쟁이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또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구조화하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 관련해 다음의 네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는 담론의 변화인데, 미국이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이자 '포식 경제(predatory economics)', 그리고 '전략적 경쟁자'로 적시하며 적극적인 견제와 균형에 나섰다는 점이다.

둘째는 양국 간 상호 인식의 악화이다. 관련해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근래에 미국인들의 대중국 인식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하나는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미국 정부의 정책 노선과 점점 더 긴밀히 맞물려간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에 대한 담론과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사회적 접근(a whole-of-society approach)'이라는 미증유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에서 시작해 최근 펜스 부통령의 윌슨센터에서의 연설에 이르기까지 - 일각에서는 '과잉 반응'이라고 할 정도로 - 치밀하고도 과감한 대중국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

넷째, 몇 년 전 정책 서클을 뜨겁게 달궜던 '신형대국관계' 개념은 기억에서 이미 사라졌고, 갈수록 미-중 간 '기 싸움'이 빈번해지면서 '구형대국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수차례 양국 전함들 사이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양국 전투기까지 위협 비행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이용한다"라고 인식하고,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인내를 시험한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sy)'을 통해 상호 적대감이 증대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구조화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줄 세우기'를 초래하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이 - 직접

전쟁이나 대리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 자기편임을 확인하려 역내 국가들에게 “우리 편이야 아니야”를 끊임없이 묻는 ‘대리 경쟁(proxy competition)’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년만 해도 한국은 매년 한 번 이상 이 같은 대리 경쟁의 모서리로 내몰리는 일을 겪었다. 이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가입 여부나 화웨이 구매 여부와 같은 경제/통상 이슈로부터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Asian security by Asian people)’를 제창했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승절 참석 여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사드(THAAD)’ 배치 여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안보 이슈가 포함된다. 향후 양국의 국력 차가 줄어들수록 이 같은 딜레마의 빈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소위 ‘균형외교’라는 것이 갖는 모호성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동시에, 의지와 전략의 결여라는 한국외교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생동하는 두 개의 거대 국가 사이에 과연 변하지 않는 균형점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미-중 간 경쟁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뒤집어 보기’가 필요하다. 주권과 국격의 수호를 위한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5막 3장으로 이뤄진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제목의 연극에서 무역분쟁은 이제 1막의 4장쯤에 불과하다. 미-중 관계의 본질이 점차 ‘협력을 토대로 한 부분적 갈등’으로부터 ‘갈등 속의 선택적 협력’으로 바뀌고 있어 한국의 고민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어려움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초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닥친 위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끝/

저자 소개

정재호 교수는 미국 미시건대학(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정치학박사를 받았으며, 홍콩과기대학 교수를 거쳐 1996년부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8권의 저서 및 편서가 있으며, 최근의 저서로 2017년 Choice Award를 수상한 *Centrifugal Empire* (컬럼비아대 출판부, 2016)가 있다. 2009년 서울대 학술연구상과 201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Email: cjhir@snu.ac.kr)